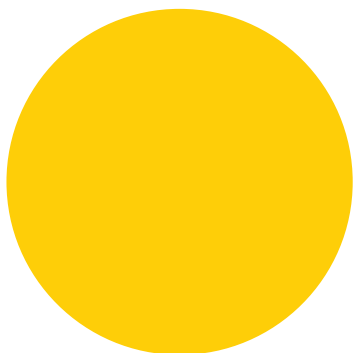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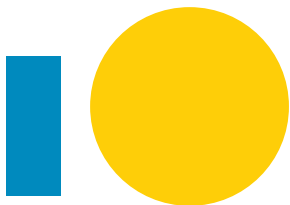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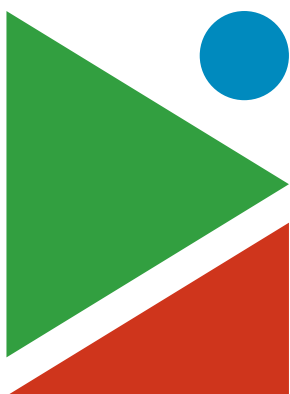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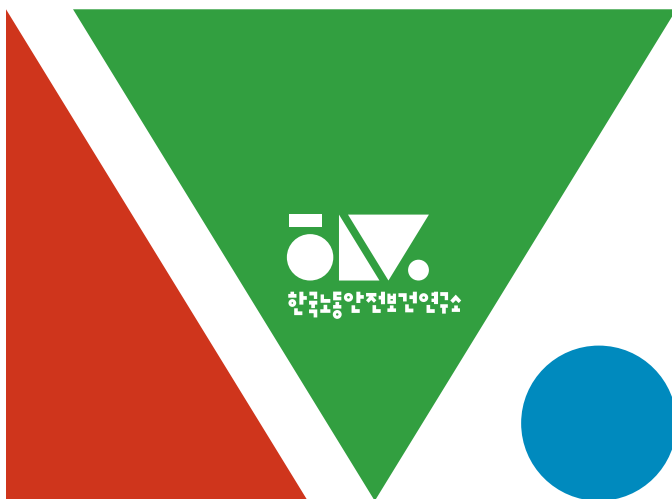


202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보고서



2 0 2 3  
A N N U A L  
R E P O R T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03년에 창립한 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입니다. 우리는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주체가 되고 현장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지향을 표방하며 활동해왔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뜻깊은 2023년, 한노보연의 활동보고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2023년 한노보연은 '열린 조직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집중하였습니다. 더 많은 회원이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정비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20년의 한국사회 노동안전보건운동에 대한 평가 연구도 기획하고 연구소 활동의 전망과 고민을 담은 20주년 선언문도 발표하였습니다. 20주년 행사는 '이어달리기, 함께 달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면서 오랜 회원부터 새로운 회원, 한노보연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축하하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집중사업으로 힘을 쏟아왔던 여성노동건강권 활동은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출범 준비를 마쳤습니다. 젠더화된 노동과 사회에 문제제기하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23년에는 <기후정의팀>이 처음 구성되어 기후정의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노동자건강권과의 연결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20주년 선언에서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매개로 기후정의운동을 펼쳐겠다고 선포한 만큼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제입니다.

2023년은 노동자의 건강, 일터, 삶이 더욱 위협받는 한 해였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확장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안을 반대하며 간담회 주최, 연속기고, 노동자 인식 조사 등 활발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 대해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함께 의무휴업일 변경 전후 조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자본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개악시도에 맞서, <당장멈춰팀>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대응활동을 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조합 탄압에 대응하여 연대활동을 벌이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에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주년 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노보연은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생명, 평등이라는 가치'를 근거로, 일하는 사람 사이의 분절을 넘어 일하는 사람 모두의 평등을 실현하는 투쟁을 올해에도 이어갈 것입니다.

2024. 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이혜은**

CONTENTS

02

인사말

04

2023년 집중 활동 : 열린 조직으로의 성공적 전환

08

증장기과제 1 일터에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10

증장기과제 2 젠더 관점에서 노동안전보건운동 실천

12

증장기과제 3 더 넓게 만나기 위한 매체 모색과 선전위원회

14

지역 및 위원회 1 '좋은 노동시간'을 위한 노동시간센터의 활동

16

지역 및 위원회 2 새로 만들어진 한노보연 기후정의팀!

18

지역 및 위원회 3 서울, 부산, 경기, 충청. 전국 방방곡곡의 활동

22

2023년 연구활동

24

연대운동의 확장

28

2023년 한노보연, 그 밖에 무엇을 했나요?

32

재정결산

34

후원안내

## 열린 조직으로의 성공적 전환

2023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주년을 맞아 기존의 후원회원을 모두 회원으로 하여, 새로운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한노보연은 이런 변화를 '열린 조직'이라고 불러왔는데, 우리가 표방하는 '열린 조직'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의제를 지속해 발굴하고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다양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연단을 확장해나가는 진취적인 조직입니다.

### 달라진 구성, 더 넓어진 우리



지난 몇 년간의 조직 전환 준비를 거쳐, 2023년 10월 20주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회원과 후원회원 구분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단일 회원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회원들이 기존 회원들과 연구소 다양한 활동에서 만나면서 서로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나 서울 회원/후원회원 등산 모임, 상하반기 신입회원(후원회원)의 날 등을 진행했고, 연구소 20주년 행사와 송년회에도 후원회원들을 적극 초대했습니다. 연구소 여러 행사와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는 (후원회원에서 전환한) 새로운 회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확대된 회원 체계에서 더 중요해지는 평등 약속문과 회원 징계 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등도 정비하여 더 넓어진 우리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연구소는 다양한 회원들이 함께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전위, 당장 멈춰팀,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노동시간센터, 기후정의팀, 지역별 모임, 영어 홈페이지 모임 등 다양한 일상 활동에 회원들이 결합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습

니다. 최근에는 연구소 수영 모임, 등산 모임, 달리기 모임 등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한노보연의 활동에 풍덩 뛰어들어 주세요.

### 함께 만든 20주년 행사 '이어달리기, 함께 달리기'





20주년 행사는 '이어달리기, 함께 달리기'라는 이름으로 연구소 20년을 함께 한 여러분들과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함께 할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였습니다. 창립 시기부터 함께 해 온 회원들, 연대사업이나 연구사업을 함께 했던 동지들, 최근 새로 가입한 후원인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성대하고 뿌듯하게 진행했습니다. 컨셉 디자인과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 영상 준비, 샌드 아트 준비, 20주년 행사준비위원회 등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부산에서도 따로 회원들과 2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연구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국 사회의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20년을 돌아보는 연구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김지희, 박상은, 임자운 회원이 애써주셔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 읽기\)](#)

평가와 회원 토론을 거쳐 앞으로의 연구소 활동을 다짐하는 '한노보연 20주년 선언문'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생명, 평등'이라는 가치'를 근거로, 일하는 사람 사이의 분절을 넘어 일하는 사람 모두의 평등을 실현하는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노보연의 결의와 약속이 담긴 20주년 선언문을 읽어보세요.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주년 선언문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본주의가 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후와 생태 위기, 극심한 불평등과 민주주의 위기, 다음 세대는 물론 당장 내일의 삶의 전망이 불투명한 재생산 위기. 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 역시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부딪힌 이 체제를 바꿔내려면 일하는 사람의 단결과 투쟁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난 20년의 위기 속에서 분절된 우리들에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생명, 평등'이라는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이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직종과 업종, 고용 형태와 지역, 국적과 성별 등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일하는 우리들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차이를 꺼안고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생명, 평등'을 침해하는 체제를 바꾸기 위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윤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고 다치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모든 사람이 회원이 되어 함께 활동하자는 '열린조직'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20년이 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각자의 사업장과 지역, 정체성에 갇히지 않고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 임금노동과 무급 노동의 구분을 넘나들며,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전국적 운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기치로, 불평등과 분절을 넘어설 계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과 현장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과정'에 주목하며, 일하는 사람이 이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노동자 건강의 기본 조건이고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현장 노동자의 경험과 지식을 대항지식으로 구성해나가는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생명, 평등을 위협하는 이 사회 체제를 넘어, 다른 사회운동들과 함께 대안적인 삶과 노동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젠더화된 노동과 사회에 문제제기하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전면화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매개로 기후와 생태 위기에 도전하는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해 왔던 노동시간과 노동현장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싸움을 일하는 사람 모두의 평등을 실현하는 투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쟁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을 통제하여 진정한 노동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쉼 없이 투쟁할 것"이라던 20년 전 창립 선언문의 정신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이어 온 20년의 달리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는 달리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일터에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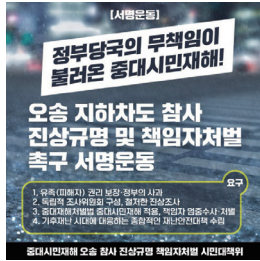
연구소는 2020년부터 일터에서 노동보건 영역을 넘어 안전 분야의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정부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재구성,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 필요성 공론화 확대, 안전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장멈춰팀 상황실 운영과 매월 1회 정기적인 기획팀 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 위험성평가 재구성활동

상반기에 윤석열정부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평가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TF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TF에 참여 중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제 법 개정의 한계와 유실되고 있는 로드맵의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위험성 평가가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안전을 담보하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현실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준비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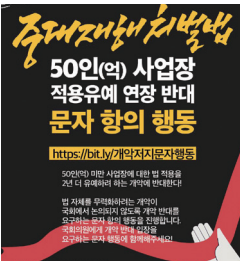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개악저지 대응활동



윤석열 정부와 자본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와 개악시도에 맞서서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의 중대재해 대응, 충청지역의 오송지하차도 참사대응, 생명안전후퇴 중대재해처벌법개악저지 공동대응 활동을 전국과 지역을 아우르며 진행하였습니다. 이 활동보고서를 쓰고 있는 2024년 1월에도, 일부 정치인과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를 위한 활동



개인 처벌을 넘어 사회, 현장의 시스템을 바꾸는 재난조사를 위하여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책 저자인 박상은 회원을 모시고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에 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읽어보셨나요? 노동부의 중대재해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당장멈춰팀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활동의 결과라고 단언컨대 주장하고 싶습니다.

###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대법 판결 대응활동



2016년 세종시 부강산업단지내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건 당시, 인근에 위치한 콘티넨탈 지회 조남철 지회장은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지회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 2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 뒤,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당장멈춰 팀은 금속노조와 함께 기자회견, 탄원서 작성, 11월 8일 작업중지권 토론회를 개최하여 1심, 2심 판결의 문제점과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다행히 파기 환송되어 현재는 파기 환송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번 대법 판결 대응을 계기로 2024년 금속노조와 함께 작업중지권 후속 연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매일노동뉴스 칼럼 기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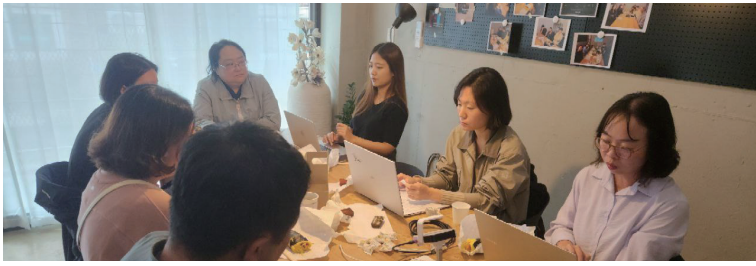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기도, 퇴행적 노동정책과 노조탄압, 중대재해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작업중지권 복원 등을 매일노동뉴스 칼럼에서 다루며 지속적인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공부모임 추진

연구소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상임활동가와 회원이 함께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공부도 하였습니다. 모두 합격한 것은 아니지만, 2024년에도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부모임과 안전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을 배치해볼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회원분들은 함께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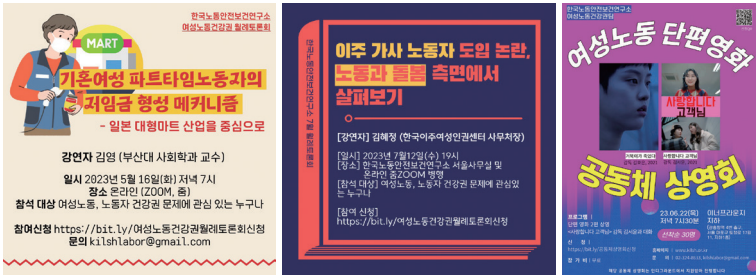
## 젠더 관점에서 노동안전 보건운동 실천

### 토론·실천을 모색하는 정기 모임



연구소는 여성노동자건강권을 집중 의제로 2020년 2월부터 여성노동자건강권 팀을 구성했습니다. 15명 가량의 회원(및 후원회원)이 매월 정기 월례모임을 대면·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례토론회, <일터> 코너 연재를 비롯 다양한 기획 사업과 연대 사업에 대한 논의와 집행, 세미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젠더 관점에서 해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연구소 회원은 센터원으로 함께해주세요.

### 월례토론회와 여성노동 독립영화 공동체 상영회



월례토론회는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총 6차례 진행했습니다. 백래시 현상, 이주노동자 산재, 기혼여성 파트타임과 저임금 현상, 이주가 사 노동자 도입 문제, 조선소 하청업체 화장실 이용 경험 연구 등 노동/젠더/건강 등 익숙한 주제이지만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동향을 점검 하면서 주제를 선정했고, 30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온라인 진행 등으로 인해 멀어졌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만남의 장으로 독립영화 두 편(<거북이가 죽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을 선정해 공동체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2024년에도 월례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획 활동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 내는 <일터> '여성+노동 +건강 ON' 코너

연구소 노동안전보건잡지 <일터>에 '여성+노동+건강 ON'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코너는 모임원들이 필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명되지 못하는 사건과 의제를 젠더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회화하는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다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 <일하다 아픈 여자들> 출간

19명의 여성, 성소수자, 장애여성, 산재 가족의 노동과 산업재해 이야기를 담은 <일하다 아픈 여자들 : 왜 여성의 산재는 잘 드러나지 않는가?>가 2023년 12월 마지막 주에 출간됐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젠더화된 일자리의 건강 문제를 살피고, 산재 제도의 문제와 개선 지점을 다루고자 한 책입니다. 노동자 건강에서 젠더 문제를 사유하는 것의 의미가 잘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노동건강 의제 확장과 조직 구성 :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출범

2024년 1월 27일 연구소 21차 총회에서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센터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노동자의 건강(권)이 물성적(gender blind)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토론과 연구소 20년 활동 평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은 것을 넘어, 자기 해방의 매개체로 노동자 건강권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지닌 노동안전보건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또한 강남역 살인사건, 낙태죄 폐지, 태아산재법 개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일터와 삶을 관통하는 여러 사건을 거치며 노동과 젠더의 만남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성을 시대적으로 마주했습니다. 앞으로 센터를 통해 젠더 관점에서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 연대활동으로 접점 마련하기



연구소만의 활동으로 단단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균열을 내기란 어렵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힘을 모어나갈 때 빈틈을 비집을 수 있겠죠. 2023년에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참여를 통해 젠더, 인종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힘에 맞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당역 사건 1주기 국회토론회, "여성노동 차별의 구조, 위험, 그리고 역설" 한국추계여성학회 토론, 윤석열 정권 1년 여성시국선언 참여, '젠더와 노동자건강권'을 주제로 한 교육 등을 해왔습니다.



## 더 넓게 만나기 위한 매체 모색과 선전위원회

### 노동안전보건 이슈를 꾸준히 다루는 잡지 <일터>

선전위원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노동안전보건 잡지 <일터>를 발간하며, 노동안전보건 의제를 제시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연구소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잡지를 발간해오면서, 노동시간, 작업중지권, 근골격계질환 투쟁과 더불어 최근 집중 사업인 여성노동건강권, 기후정의운동 등 연구소의 주요 의제와 사업을 잡지에 실어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2023년 선전위원회는 연구소가 열린조직으로 전환하는 해에 발 맞춰 회원, 후원회원과 더욱 밀접하게 활동하고 노동안전보건 의제를 알리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연구소의 집중 사업 및 주요 사업과 연계한 주제로 <일터> 발간을 두 번째 목표로, <일터>의 기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발굴하는 것을 세 번째 목표로 세웠습니다.

2023년, 일터 특집에서는 한노보연의 주요 활동이나(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국제연대, 웹툰작가 연구, 한노보연 20년), 시의성 있는 주제들(노동 개악, 여성 노동자의 자리, 장애운동과 기후정의운동, 노동조합의 사회적 합의 문제, 노동 파편화)을 다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에 따른 건강권 침해 문제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일터>에서는 특히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을 많이 만납니다.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노동 현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리고, 또 하고 당하거나 그로 인해 투쟁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만나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일터>

일터를 함께 만드는 상임활동가들과 선전위원들은 매달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통해 특집 주제를 선정하고, 기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오프라인 회의와 온라인 회의를 번갈아가며 열었습니다.

선전위원들과 상임활동가들은 기사를 더 잘 쓰고 일터를 더 잘 만들기 위해 교육도 받습니다. 2023년에는 선전위원이기도 한 권중혁 기자로부터 인터뷰 잘 하는 법, 인터뷰 기사 잘 쓰는 법을 주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터 12월호 특집

으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을 다룬 뒤, <명동성당 미등록이주노동자 농성투쟁 20주년 기념 전시>에 선전위원들이 함께 방문해 이주노동운동의 오랜 역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일터에는 상임활동가와 선전위원 뿐 아니라, 각 코너마다 성격에 맞게 직업환경 의학 전문의, 노무사, 연구자, 노동현장 활동가인 회원들이 필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노보연의 회원과 후원회원 체계가 회원으로 통합되면서 더 많은 분들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고 다양한 회원들을 필자로, 기사 제안자, 인터뷰어로 일터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 다양한 매체로 만나는 노동안전보건 의제

<일터> 특집 기사는 카드뉴스로도 만들어 독자들이 더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book을 선호하는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2023년 하반기부터는 회원들에게 pdf 파일을 뉴스레터 형식에 담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로 일터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 외에 [홈페이지](#), [페이스북](#),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연구소 소식과 다양한 노동안전보건 이슈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매일노동뉴스 노동안전보건 전문 칼럼

법제도 및 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루는 매일노동뉴스 전문가 칼럼 코너입니다. 연구소 상임활동가와 회원들이 함께 기고 중입니다. 매주 목요일 나오는 칼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노동시간’을 위한 노동시간센터의 활동

###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악 반대 행동

2022년 말부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 흐름을 본격화했습니다. 노동시간센터(센터)는 이를 잘 반박하며 우리 몸에 맞는 ‘좋은 노동시간’을 사회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센터 차원의 독자 연구를 진행하며 불규칙 노동의 문제, 야간노동의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자 했고, 센터 연구위원을 새로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선택권’ 운운하며, 현재의 ‘주 52시간 상한제’가 너무 경직적이라며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분기나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센터는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과 함께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유가족, 전문가 기자간담회”를 공동 주최하며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한발 물러섰던 노동부는 2023년 11월, “일부” 업종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노동 단위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센터는 이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통제권을 약화하고 불규칙성을 강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매일노동뉴스 연속기도 진행했습니다.

### 연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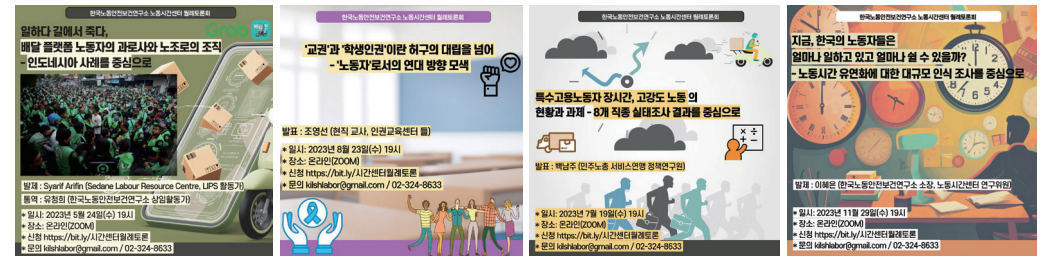
2023년 초 대구와 청주가 마트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습니다. 센터는 마트 의무휴업이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된 전후 마트노동자 일삶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의무휴업이 수요일로 변경된 청주 노동자들에서, 특히 회복탄력성이나 일삶 균형에 악영향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말이란 사회적 휴일의 의미로, 주말에 같이 쉬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5천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실태와 정부 정책 관련 인식을 묻는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연차조차 잘 못 쓰고 있는 현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월례토론회나 언론을 통해 알리기도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센터 차원 연구모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서, 노동시

간 단축이 탄소 배출량 감소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축의 과실을 누릴 여지조차 주어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긍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조직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월례토론회 및 공동세미나



### 2023년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회 자료집 모음

센터는 월례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소개하고 사회화하고자 했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고, 안로브(ANROVE) 컨퍼런스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활동가로부터 인도네시아 배달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현황을 듣기도 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시간 관련 현황도, 교과관 학생 인권의 허구적 대립 속 노동자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발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노동시간에 대한 많고 다양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노동자의벗’, ‘학생사회주의자연대’와 공동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의 벗’과는 ‘노동시간 세미나’, ‘노동자 건강권 세미나’를 통해 좋은 노동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생사회주의자연대’와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사례 공유, 기후위기, 젠더와 노동시간 등을 다루었습니다.

### 2024년의 과제는?

센터는 노동시간의 절대적 길이뿐 아니라 불규칙 노동, 야간노동, 유연화가 문제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를 기자간담회나 기고, 성명,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반복 강조하며 정세에 대응해 갔습니다. 시의적절하고 현장에 필요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좋은 삶을 위한 좋은 노동시간을 쟁취해나가기 위한 투쟁과 연구는 지속됩니다. ‘노동시간’에 관심있는 분들, 누구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새로 만들어진 한노보연 기후정의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후정의팀(기후팀)은 2023년 4월 414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참여한 뒤, 2023년 5월 만들어졌습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심화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1)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해 가는 노동자 건강권의 투쟁이 기후정의와 떨어져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2) 노동시간 단축이나 작업중지권, 돌봄 사회로의 전환 등 매개를 고민하며 3) 기후정의에 관심 있는 회원들을 확인하고 발굴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923 기후정의행진

2023년 8월 쿠팡물류센터지회(쿠팡지회)는 폭염 시 매시간 15분 휴식 시간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걸고 투쟁했습니다. 기후팀은 폭염 등 위험 상황에서 휴식 및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쿠팡이 조장한 불필요한 야간노동을 없애며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게 곧 기후정의의 요구라는 뜻으로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농성장 방문 전날, 기후위기로 인한 역대급 태풍 '카눈'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은 농성장을 무너뜨렸고, 폭염을 한풀 꺾었습니다. 폭염을 꺾은 게 태풍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창고 형태의 물류센터 내부는 여전히 체감온도 30도가 넘었다는 아러니를 마주하며, 기후팀은 농성장 복구와 피켓팅에 함께했습니다.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및 철도노동조합과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교통요금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탈피하고, 이동권이 시민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토목건축 자본이 수익 창출을 위해 철도를 연장하는 건 기후정의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 노동조합이 참여한 상태에서 교통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한노보연은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도 함께했습니다. 당일엔 쿠팡지회와 함께 행진했습니다. 팀 명의로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 'N개의 기후정의학교'와 'N개의 기후정의선언대회'

- N개의 기후정의학교 한노보연 발제문
- N개의 기후정의학교 단위별 발제 영상
- 한노보연 기후정의 선언문 및 N개의 기후정의선언문

노동자 건강권뿐 아니라 교통, 보건 의료, 에너지, 재생산권, 주거권, 탈시설 등 운동 주체들이 기후정의를 자기 의제로 고민하는 자리인 'n개의 기후정의학교'가 기후정의동맹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후팀은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중지권, 필수노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마트노조와 쿠팡지회가 지정토론자로 함께하며 현장의 고민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 더 많은 노동 현장에서 기후정의를 구체화해 나갑니다!

기후팀은 "n개의 기후정의선언대회"에도 함께했습니다. 한노보연 명의의 기후정의 선언문을 작성·토론하며 노동자 건강권을 기준으로 일터와 일상을 재조직해가는 운동이, 자본주의 무한 생산/가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후팀은 기후위기와 노동자 건강권을 매개로 여러 노동조합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특히 쿠팡지회와 기후로 활동을 계속 이어갔고, 꾸준히 연대하고 있던 마트노조와도 기후로 만날 거리를 찾아보았습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및 철도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 지지 기자회견 공동주최, 시민공청회 홍보와 자료 공유 등 공공교통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와 관련한 이런 다양한 고민을 <일터 기후정의 공론장(일기장)> 코너를 통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 무한 생산이 기후위기를 초래했고, 작업중지권과 노동시간 단축이 기후위기 시대이기에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높은 동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여러 현장에서 싸움과 변화로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대학이나 발전소, 옥외, 이동, 제조업 노동자 등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대응 투쟁'을 넘어 노동자 통제권 확보 투쟁으로 이름을 붙이고 적극적으로 함께할 거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팀원 서로의 관심과 고민을 잘 축적해나가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서울, 부산, 경기, 충청, 전국 방방곡곡의 활동

서울지역에서는 매년 신규노무사 모임 '노동자의벗'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혹은 노동자건강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노동자건강권' 세미나와 별도로 '노동시간'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신규 노무사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연구소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정부를 향한, 대자본을 향한 투쟁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이 서울이다보니 다양한 집회, 캠페인, 기자회견에 연대하고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한노보연 서울사무실이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에는 김용균재단, 반올림 등 노동 안전보건단체가 모여 있어 올해 포스터 행동, 퇴근 선전전 등을 지역에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 서울

노동조합들과의 연대활동 외에(연대활동은 24p를 보세요) 더큰이웃아시아 이주노동자 통역사 역량 강화 교육, 가톨릭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강의, 평택 비정규직센터, 여주노동권익센터, 성북 즐거운교육상상, 남양주 어람중학교, 연극 괴물B 팀 등 다양한 분들을 노동자 건강을 주제로 한 강의와 교육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전국구 활동을 하다보면 '서울지역' 활동이 모호할 때도 있지만, 꾸준히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 부산



### 나누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부산회원모임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유해물질공부모임은 8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영일회원이 준비한 강의로 일반 화학물질에 이어서 유기화학물질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인권플랫폼단체 파랑의 '모여랑'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어 5개월 동안은 풍성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5월 1일 메이데이를 맞아 지역의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제작한 선전물을 들고 송상현광장에서 출발하여 동해선 거제해맞이역까지 많은 회원들이 선전전에 함께하였고,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집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2개월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원 전체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와 고민을 나누고, 지역 활동-교육, 토론회, 20주년 행사 등-을 함께 계획하고 역할분담을 합니다. 11월 16일 회원과 함께하는 부산지역 연구소 20주년 축하행사를 개최하여 연구소 20년 활동을 함께 나누고 향후 연구소가 지향할 운동과 활동 방향에 대하여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에는 열린 조직에 맞는 부산 회원모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보다 더 다양한 회원모임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실천해요!!



그 밖에도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급식실 노동안전지킴이 대상 위험성평가 교육,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운영위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상임활동가를 포함하여 대부분 연구소 회원이 강사로 참가한 부산노동권익센터 주최 부산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노안활동가 양성 교육, 금속노조 동부산지회 이원정공분회 조합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간부와 조합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동정책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부산시 노동권익위원회 위원(2023년 상반기까지) 및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활동에 참여 중입니다. 부산시 노동정책평가 토론회에서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지자체 책무에 대한 발제를 하였고, 분기별로 부산시 산하 관급공사 현장 안전보건 점검활동에 참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



수원에도 한노보연 사무실이 있는데, 2023년에는 경기 상임활동가인 푸우씨 (손진우) 활동가가 안식년을 다녀왔습니다. 상임활동가가 없다보니 예년에 비해 활동이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2023년 2월에 모임을 갖고 상임활동가 부재 시에 어떻게 운영할지 의논하고, 2023년 5월에는 경기 회원 등산모임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푸우씨는 안식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전 관련 자격증을 두 개나 취득했답니다! 2024년 꼭 쉬고 돌아온 푸우씨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 충청



충청 지역에는 사무실은 따로 없지만, 회원들이 많고 특히 노동자건강권 활동을 일선에서 펼치는 회원들이 많아서 충청 회원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담당 상임활동가의 부재로 한노보연 충청회원모임의 독자적인 활동은 주춤했습니다만, 충청 지역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활동의 여러 현장에는 언제나 연구소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치유와 연대의 공동체 두리공감 활동가 중에도 연구소 회원들도 많은데요, 2024년에도 따로 또 같이, 충청 지역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자기 노동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활동해보아요.

# 202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보고서

2 0 2 3  
A N N U A L  
R E P O R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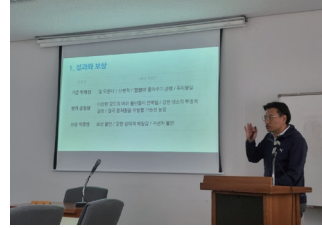


## 2023 한노보연의 연구활동

연구소는 매년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와 만나며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연구 이후에도 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노동자 직무 스트레스 실태조사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노동조합과 연구소는 노동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이를 유발하는 요인, 노동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성과 압박과 노동강도가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였고, 평가와 보상의 연계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노동조합 참여 하에 긴급 위기 대응과 프로세스 재구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TF구성과 '민주적 공동체'로 나아갈 것 등을 장단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경기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파악 및 정책방안 마련 연구

초단시간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입니다. 경기도의 의뢰에 따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결과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편의점이나 식당 알바 노동자, 노인일자리 노동자, 대학강사나 예술전문강사, 지자체 예술단원 노동자 등 다양했지만, 다들 법적 차별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사회보장에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하고 있기도 합니다.



### 삼성 고과 제도의 현황과 폐해 실태 연구

#### -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중심으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금속노조 삼성전자SDI지회에서 고과제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금속노조와 함께 연구소가 실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두 기업 노동자들은 성과급 제도가 불합리하고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삼성에 노동조합과 적극 협의해 개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식을 고안할 것, 노동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 디지토프로모티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주)디지토프로모티브는 인천의 자동차 운전석 부품을 조립하는 회사입니다. 금속노조 부평공단지회와 연구소 상임활동가들이 지회 실행위원들과 함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실시 결과,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자세, 상지 반복 작업 등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을 드러냈고, 많은 공정에서 노동강도 완화 필요성도 도출했습니다. 개선과제로는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 속도 조절과 인력 충원, 협소한 공간 개선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삼성-전자계열사 노동환경 및 위험유해요인 실태조사

2023년 2월 '삼성전자계열사 노조연대'를 출범하고, <노동환경 및 위험유해요인 실태조사>를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판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에서 화학물질 알권리 제한, 삼성전자서비스의 중량물 취급과 고객 응대 부담, 삼성전자판매의 고객응대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문제들로 드러났습니다. 공통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마트노조 의무휴업 평일 전환 전후조사

대형마트는 월 2일 공휴일에 휴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대구광역시와 청주시에서 의무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가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함께 한 조사에서,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후 '워라밸' 불만족 점수가 크게 증가했고, 근무시간 불만족이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의무휴업 평일 변경 확대 추세를 멈추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2023년 한노보연, 연대운동의 확장

### 새로운 노동조합과 만남, 새로운 의제로 넓혀나가기

연구소에게 노동조합과 연대활동은 오래된, 중요한 운동 방식입니다. 2023년은 연대활동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 확장한 해였습니다.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와 같이 꾸준히 연대하는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마트 의무휴업 폐지 관련한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와의 연대,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조합들의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공동 연대체 구성과 현장 연구 활동을 새롭게 시도하면서 연대운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망연대본부와는 노동안전보건 교육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시도하는 모범 사례들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대명사인 배달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들여다보는 연구 사업도 첫발을 뗐습니다. 연구소는 불안정노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해 나가기 위한 노동조합과의 연대운동을 전국을 아우르며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노동권과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연대 모색 :

#### 양회동 열사 투쟁과 노조법 2·3조 개정

2023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이 강도 높게 자행됐습니다. 노동조합 탄압은 곧 노동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도 활발히 있었습니다. 노동권 보장이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과 사회적 의미를 토론회, 기자회견, 캠페인 등 여러 사회운동단체와 공동활동 모색을 통해 알려나가고자 했습니다. 노동권 탄압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무너지지 않는 연대의 힘을 2024년에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교육 활동을 통한 만남의 장

노동자 건강권 교육을 매개체로 만남의 장을 열고 활동을 도모하는 것 역시 연구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노동조합부터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까지 모든 일하는 사람이 건강권을 보장받고, 자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개인, 단체 어디라도 연구소의 문을 두드리면 함께 합니다. 2023년에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학교,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노동안전특별위원회 교육,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폐질환 의심자 대상 질환 이해 교육,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집행위 역량 교육, '학생사회주의 자연대와 노동시간 기획 강좌 등 다양하게 이뤄졌습니다. 노동자 건강권 교육 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 함께 모여 체제를 바꿀 운동의 기획 :

#### 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연구소는 법·제도, 정책을 바꿔내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 구조적 원인을 직시하며 대안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다른 세계로 길을 내는 활동가 모임'(길내는모임)과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준비에 참여합니다. 길내는모임은 체제에 갇히지 않는 사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다른 세계로 길을 내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각자 흩어져 정책 대안을 만드는데 만족하는 것을 넘어 사회운동단체들이 함께 모여 체제를 바꿀 운동을 기획하자는 취지로 연구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혁운동의 고민 속에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집행하는 연대라는 연구소의 오랜 고민이자 활동 방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소중한 걸음입니다. 길내는모임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세요](#). 또한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역시 [홈페이지에 찾아와주세요](#).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하는 부산지역 연대활동**

연구소 부산지역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부산기후정의꿈틀,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부산모임 등 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노동인권감수성과 청소년 노동권의 향상을 위해 학교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활동, 노동상담, 전국현장실습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현장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위하여 활동 중인 부산운동본부는 부산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1호 판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4월 28일 세계 산재노동자추모의 날을 맞아 부산역에서 시민대상 사진전과 추모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자본주의에 맞서서 기후정의운동을 부산에서 펼치기 위한 '부산기후정의꿈틀'에 참가하여 부산기후정의학교를 개최하였고, 더불어 12월부터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부산모임을 구성하여 지역에서도 변혁운동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모색과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부산지역의 다양한 연대활동에 많은 회원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만날수록 더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연대활동**

- 414 기후정의파업 추진위원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전
- 윤석열 정권 1년 여성시국선언 - 여성인권후퇴 1년,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사회운동단체 기자회견
- 양회동 열사 추모 문화제 인권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문화제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투쟁 기자회견, 집회, 문화제, 도보행진 참여
- 택시노동자 방영환열사 투쟁승리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집회
- 상병수당네트워크 : 건강노동사회시민포럼



**이 외에도 한노보연이 함께 하는 연대체**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 생명안전 후퇴 기조에 맞서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에 힘을 모으는 연대체입니다. 정부와 경총은 50인(역)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다양한 기획, 투쟁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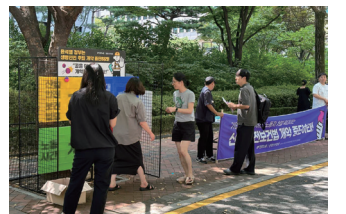
**학교급식실 폐암 대책위**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승인이 지속되고 있지만 인력 충원, 개선 마련은 더딘 상황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폐암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

2023년 공공 부문 파업을 앞두고 꾸려진 공동행동입니다. 9월 공공성 페스타 기간에 연구소는 생명안전 후퇴 개악 선전전, 상병수당 부스, 서울시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이주·가사노동자 공동행동과 함께 시민행진을 제안해 참여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민영화 시도에 맞선 기자회견, 집회 등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 확 달라진 로고와 홈페이지

20주년을 맞아 연구소에 로고가 생겼고, 홈페이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연구소 상징이 없이도 잘 지내왔지만, 20주년을 계기로 연구소의 지향을 담아보았습니다. 로고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약어 '한노보연'의 초성을 기호화한 형상입니다.



황색은 노동보건운동의 진취를, 중심부가 되는 적색은 노동과 운동을, 녹색은 건강과 보건을 의미합니다. 심볼의 시작을 열고 끝을 마무리하는 청색은 안전을 상징하는 동시에 노동현장과의 안정적인 신뢰와 유대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형을 각기 다른 비율과 색상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노동, 다양한 현장, 다양한 주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연구소의 지향을 담았습니다. 로고는 부산 회원 메일 님이 디자인해주셨습니다. 처음에 20주년 기념 페이지만 만들려다가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연구소 20년 역사가 시기별로 여러 곳에 나뉘어 있었는데, 드디어 한 페이지로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일터>도 보기 좋게 되었고, 영어홈페이지, 이훈구 동지 추모 페이지 등도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아시아를 넘어 뻗어가는 국제연대

연구소는 몇 년 전부터 동아시아과로사감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의 사회단체들이 각국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문제 현황을 나누고 함께 운동을 조직하려는 시도입니다. 2023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2023 ANROEV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 시기 아시아의 과로사 문제>를 주제로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까지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 가을에는 ICOH-WOPS & APA-PFAW 컨퍼런스에 <일터에서의 사회심리적 위험 해결하기: NGO의 지원 활동> 세션에 역시 동아시아 과로사 감시 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참여했으며, 과로사 감시 활동을 함께 하고있는 대만 단체 OSH Link가 주최한 온라인 컨퍼런스 <New occupational threats: International experience, breakthroughs and perspectives>에도 참여했습니다.



## 독립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독자연구공모사업

연구소는 연구사업비 수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자유 주제로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021년 독자연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웹툰작가들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과 불안정 노동 수준 실태조사>의 결과를 국회 토론회로 발표하였습니다. 웹툰 작가들이 주당 평균 51시간씩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고 10명 중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결과가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공공직업환경의학센터와 공동 주최로 공모전을 진행해, 다음 세 가지 주제의 연구를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생연구노동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팀대표: 박민영)>, <국내 콘텐츠 모데레이터 노동의 실태와 위험성(팀대표: 노가빈)>, <이주노동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모색방안(우춘희)> 2024년 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고 이훈구 활동가 구술기록집 발간

연구소 초대 소장이었고, 2003년부터 202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연구소에서 상임활동을 했던 자랑스러운 선배 이훈구 활동가의 3주기를 맞아 구술기록집 <이훈구 - 사회 변혁을 꿈꾼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유경순, 나름북스)가 발간되었습니다. 9월 3주기 행사는 이훈구 동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책을 매개로 그의 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고 의미를 되새기는 북토크로 진행했습니다. 이훈구 동지가 남기신 기금으로 앞으로 활동가 교육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걸음

2023년에는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과 관련한 노동안전보건단체들 사이의 연대가 활발했습니다. 연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관련한 토론회(<판정위원회를 말한다 : 현실,문제,대안>)를 공동으로 진행했고, 이후 업무상질병인정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간담회 및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11월에는 산재노동자를 공격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긴급 증언대회(<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증언대회 : 나는 나일롱 환자가 아니다>)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에 함께 하면서, 연구소는 다른 한 편, 산재보상 받을 권리를 넘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아프면 쉴 권리로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한 시도에도 나섰습니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운동의 네트워크인 '건강노동사회시민포럼'에 참여하면서, 연구소 내에도 상병수당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기준과 관련된 연구소 내 토론회 한 차례 가졌고,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신 윤조덕 선생님을 모시고 <독일의 상병수당>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상병수당과 산재보상의 문제의식을 나누는 간담회를 노동안전보건단체들과 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아프면 쉴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더 많은 활동을 기획하겠습니다.



## 살림과 조직 안정을 위한 활동

2023년부터 회원이 대폭 늘면서(후원회원이 모두 회원으로 전환), 큰 규모의 조직을 운영해나가기 위한 준비도 필요했습니다. 그 동안 회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가치를 회원 사이의 '약속'으로 명문화한 평등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회원이 늘어나고 연구소가 관리하는 회원 정보도 확대되어, 회원 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도 수립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회칙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던 회원 징계에 관한 자세한 절차를 담은 내부 규정도 정했습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 연구소가 더 평등하고, 많은 사람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평등약속문 읽기 : [링크](#)

정보통신 운영규정 보러 가기 : [링크](#)

\*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회원 징계 내규는 회원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회원들은 [kilshlabor@gmail.com](mailto:kilshlabor@gmail.com)으로 요청하십시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3 재정정보고

2023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입은 2022년에 비해 2700만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정기적인 회비와 후원금이 1200만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하여 일시 후원금이 1400만원 정도 늘었고, 회원들이 회비 이외에 추가로 기부하는 특별기금도 2022년에 비해 400만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사업비도 2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대신 교육비 수입이 5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경력이 많은 활동가의 안식년이 있었던 영향으로 보입니다.

|             | 연 결산(원)            | 비율(%)         |
|-------------|--------------------|---------------|
| 정기 회비와 후원금  | 235,731,500        | 67.44         |
| 일시후원        | 14,882,384         | 4.26          |
| 특별기금        | 21,801,240         | 6.24          |
| 교육비         | 14,969,620         | 4.28          |
| 일상사업 수입     | 28,301,296         | 8.10          |
| 연구사업 수입     | 32,265,327         | 9.23          |
| 기타 수입       | 1,592,432          | 0.46          |
| <b>수입 계</b> | <b>349,543,799</b> | <b>100.00</b> |

지출은 2022년에 비해 7천만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상임활동비인데요, 2023년 총회에서 상임활동가들의 활동비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임활동비는 서울시 생활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2023년에는 총 7명의 활동가가 서울, 부산, 경기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외에 20주년 행사와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사업비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 총회에서 상임활동가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연 1천만원 가량의 적자 예산을 세우고, 2024년부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보자고 했습니다. 2023년은 연 960만원 적자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회원 조직에 함께 힘을 써주시시오.

| 구분      | 항목            | 금액(원)              | 비율(%)         |
|---------|---------------|--------------------|---------------|
| 인건비     | <b>활동비</b>    | 201,250,000        | 56.04         |
|         | <b>4대보험</b>   | 28,213,030         | 7.86          |
|         | <b>복리후생비</b>  | 9,510,650          | 2.65          |
|         | <b>퇴직금</b>    | 16,872,000         | 4.70          |
| 운영비     | <b>사무실관리비</b> | 34,439,944         | 9.59          |
|         | <b>대행료</b>    | 847,200            | 0.24          |
| 사업비     | <b>기획사업비</b>  | 28,491,910         | 7.93          |
|         | <b>회원사업비</b>  | 5,080,267          | 1.41          |
|         | <b>일상사업비</b>  | 18,018,636         | 5.02          |
|         | <b>출장비</b>    | 8,026,713          | 2.24          |
|         | <b>연대사업비</b>  | 5,393,670          | 1.50          |
| 사업 외 비용 | <b>기타 지출</b>  | 2,971,600          | 0.83          |
|         | <b>지출 계</b>   | <b>359,115,620</b> | <b>100.00</b> |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135명이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하였고,

35명이 여러 사정으로 후원을 중단하셨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693명의 개인, 14개 단체에서 연구소를 정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노보연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을 우선으로 하고, 공익성과 독립성에 기반하여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상근자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교육과 연대활동 사업비 등 단체의 여러 활동에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연구소가 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밑거름입니다.

정기회비를 내는 회원은 연구나 사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사업과 활동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회원은 회비 납부, 회칙을 지키고, 한노보연의 명예와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이 되지 않고 일시 후원 혹은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 회원 가입 ]

[kilsh.or.kr/cms](http://kilsh.or.kr/cms)



### 일시후원

국민은행 669702-04-026894

예금주 : 김정수(한노보연)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kilshlabor@gmail.com](mailto:kilshlabor@gmail.com)

2 0 2 3  
A N N U A L  
R E P O R T

# 2023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보고서



🏠 [kilsh.or.kr](http://kilsh.or.kr)  
✉ [kilshlabor@gmail.com](mailto:kilshlabor@gmail.com)  
🌐 [www.facebook.com/kilshlabor](https://www.facebook.com/kilshlabor)  
☎ 02-324-8633